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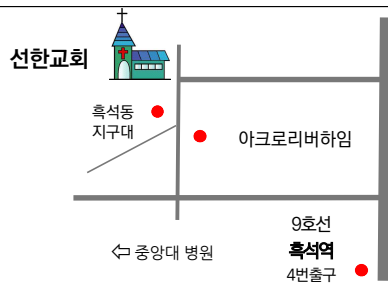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8절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0장 (통일찬송가 34장)
교 독 문	교독문 46 (시편 104편)
찬 양 과 경 배	429장 (통일찬송가 489장)
합 심 기 도	다함께
말 씀 봉 독	마태복음 13장 47~50절
설 교	그물 비유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자기 행위에 대한 보응 (잠11:16-31)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에도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 탄 전 야 찬 양 제 2020년 선한교회 비대면 마스크 가왕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교회방송실 이메일로 18일(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실 이메일 주소: sunhanbcs@gmail.com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말씀자료 제공 / 금요일기도회는 영상 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 인 경 건 훈 련 안 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사26장~렘7장]
4. 경건서적읽기: 부서별로 추천도서 독서후 나눔 (기간: 12월15일까지)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한주간이 되기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주간이 되기를
쉬지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한주간이 되기를

가정예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
찬송 :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통 259)	
본문 : 역대하 2장 4~5절	
말씀 :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성전 건축 동기를 “야훼의 이름을 위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함도 아니며, 백성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삶이 솔로몬의 고백같이 야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과 그 가정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웃 나라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 지원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알리고 있습니다.(6절)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인생 목표가 확실히 설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비록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있더라도 언제 파선할지 모르는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된 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나의 존재 의의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에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옵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열거하며 후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람 왕의 대답은 마음껏 가져다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11~16절) 이는 솔로몬이 설득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후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제단의 제물을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위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라는 이 한 가지 뜻을 향해 똑바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충성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삶과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에 솔로몬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그물 비유 (마13:47-50)
서론	예수님께서서는 그물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론	1. 그물 비유의 의미 (1)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47절) (2)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48절) (3) 의미: ①복음전파로 사람을 모음 ②세상 끝에 의인(하나님자녀)과 악인(아닌자)을 갈라 내심(49절) ③(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 2. 교훈 (1) 그물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2)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나쁜 물고기인가? (3)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	종말을 준비하며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성도의 행실과 말씀	날짜 : 12월 7일
찬양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본문	베드로전서 1:13-25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므로 성도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성도의 경건 생활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멀리해야 합니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가르치심을 좇아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적인 사랑이요, 어떤 조건의 전제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화됨으로써 우리가 이를 화증할 수 있듯이,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체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로서 항상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풀과 같은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존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묵상질문	나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성숙한 남편과 아내가 되라
찬양과 기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436)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신경이 극도로 예민했던 시기가 있었다. 노산인데다 첫 임신이기 때문에 갖는 불안감이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앞집의 소음이었다. 당시 다가구 연립 주택 2층에 살았는데, 여름이면 너무 더워 항상 창문을 열어 뒀야 했다. 앞집에는 아저씨 한 분이 사셨는데, 항상 최대 음량으로 노래를 틀어 놓고 하셨다. 한두 번 전화로 불륨을 줄여 달라고 부탁했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10시면 소음이 시작돼 해질 무렵까지 계속됐다. 하루는 참 다못한 아내가 폭발했다. “여보,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하루만 더 저 소리 들으면 미쳐 버릴 것 같아!” 임신한 아내의 말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불이 붙었는지 순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상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네! 이번에는 말로 본때를 보여 주겠어!” 내 머릿속에서는 집밖으로 나가 앞집 초인종을 거칠게 누르고 면전에서 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한참을 갈등하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 시원한 음료 1박스를 사서 초인종을 눌렀다. 정중히 인사를 하고 “아내가 임신 중인데 소음으로 쉬지를 못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출산 때까지만 소리를 줄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한 부탁과 함께 음료를 드렸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그분도 당황한 듯했다. 그런데 그 이후 기적이 일어났다. 소음이 멈춘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다.	
말씀 나누기	베드로전서 3:1~12	
묵상포인트	‘영성은 관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부부 관계는 기본적인 인간관계 중 하나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허락하셨고, 그 관계를 바르게 맺는 법을 성경을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말씀을 중심에 둘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화평이 임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1~7절)	
적용하기	부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만 보던 이기적인 시선이 이웃과 공동체로 향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숙을 이루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아보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날짜 : 12월 11일
찬양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본문	베드로전서 3:13-2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서 죽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한다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요 학벌도 없고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들을 전혀 갖지 못한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구절은 가장 논란이 심한 신학적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노아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모습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구원은 믿는 자들이 차지하는 유업과 상급을 교훈해 줍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는 방주를 타고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의 원형으로 보았습니다. 침례는 죄에 속한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출생한 자신이 살게 된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침례는 물을 통해서 받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침례의 모든 이념과 유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의존합니다.		
묵상질문	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성도들을 권면함	날짜 : 12월 8일
찬양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본문	베드로전서 2:1-10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입니다. 성도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신령한 양식, 곧 합당한 양식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영적 성장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성장을 멈추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참조, 요3:16-18).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산 돌이 됨으로써 신령한 집 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산 돌로서의 제사장인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 중에 특별히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어떤 세력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전유물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는 성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마셨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빛의 자로서 받은 바 특권의 목적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가운데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질문	선으로 악을 갚았던 기억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날짜 : 12월 9일
찬양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본문	베드로전서 2:11-25		
	베드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종의 수가 자유 시민의 네 배가 되어 노예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주를 영접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했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종은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잘못된 일이 있어서 주인에게 매를 맞고 참는 가치가 없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은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이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선행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윤리를 수반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윗사람에게 예의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임을 깨달아 삶이 작은 순간들도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모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인생을 경영하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보여 주신 모본 복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것처럼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묵상질문	나의 모습 중에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부부의 윤리	날짜 : 12월 10일
찬양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본문	베드로전서 3:1-12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돌을 결혼시키셨습니다.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베드로는 아내 된 자들에게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신자로서 아내의 순종은 일방적인 굴종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내면에 있으므로 내면을 가꾸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에 나타난 부녀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거룩한 삶을 산 것같이 그들의 남편에게 순복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복종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섬기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라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그녀를 열국의 어미로서 칭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아내들이 사라의 딸이라면 그들은 사라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부부란 매우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전통이 몸에 배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도리는 다소 거부감을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회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실행토록 힘써야 합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함으로써 아내의 요구를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온유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묵상질문	주님과 나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는 무슨 연관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기도			